

20 체외수정시술을 위한 과배란유도시 highly purified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(FSH-HP)의 효용성

영동제일병원 산부인과, 불임의학 연구소*

전종식 · 김광례 · 민혜원 · 이운태 · 이승현 · 심현남 · 조정현
노성일 · 도병록* · 윤현수*

인간난포의 성장, 발달과정에서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(FSH)과는 달리, luteinized hormone (LH)의 역할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. 따라서 현재 피하주사가 가능한 고순도의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(FSH-HP) 제제만으로도 과배란유도가 시도가 보고되고 있다.

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FSH-HP의 효용성을 알아보고자, 배란장애가 없는 불임 환자를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체외수정시술을 위한 과배란유도를 시행하였다. 실험군으로는 FSH-HP를 피하 투여한 28주기, pFSH를 근주 투여한 31주기, pFSH/HMG를 같이 사용한 34주기를 대상으로 하였고 세 군간의 나이, 불임기간 및 불임의 원인에는 차이가 없었다. 각 과배란유도주기에서 체외수정시술의 결과를 보면 획득한 난자의 개수, 수정률, 배아의 개수, 양질의 배아개수, 배아이식수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사용한 평균 배란유도제의 ample 수 (mean±SEM)는 FSH-HP 군이 20.1 ± 0.7 개, pFSH군이 31.6 ± 3.0 개, pFSH/HMG 군이 pFSH 11.4 ± 1.1 개, HMG 16.6 ± 2.4 개로 FSH-HP 군이 p-FSH 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적은 양을 사용하였다 ($P < 0.05$). 또한 이식당 임신률에서는 FSH-HP 군이 42.9%, pFSH 군이 58.1%, pFSH/HMG 군이 20.6%로 FSH 제제만 사용한 군이 통계적으로 높은 임신률을 보였으며 FSH-HP군과 pFSH 군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결론적으로 배란장애가 없는 불임 환자들에서 체외수정시술을 위한 과배란 유도시 FSH 제제만을 사용하는 것이 FSH/HMG를 같이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며, FSH-HP는 pFSH와 비교하여 피하투여를 함으로서 근주투여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, 적은 수의 ample을 사용하고도 비슷한 임신률을 나타내, 효과적인 배란유도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